

# 날씨를 더하면 충남 여행이 풍요로워진다

- 대전지방기상청, 충남날씨관광 서비스 시작

대전지방기상청(청장 박경희)은 기상기후빅데이터와 관광정보를 융합한 ‘충남날씨관광’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. ‘충남날씨관광’ 사업은 대전지방기상청이 충청남도와 협업하여 2년(2022~2023년) 동안 추진하였는데 2022년에 맞춤형 관광지 추천 기술을 개발하고, 2023년에는 관광지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였다.

‘충남날씨관광’ 서비스는 기상기후 및 관광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사용자 여행 유형에 따라 인공지능(AI)과 해시태그 두 가지 방법으로 충남의 관광지를 추천해 준다. 여행 날짜와 동반유형, 교통편, 테마를 선택하면, 인공지능(AI)을 통해 충남지역 180여 곳의 관광지 중 나에게 맞는 관광지가 표출된다. 또한 빅데이터 통계 기반의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계절·날씨, 일몰, 봄꽃, 단풍 등의 명소도 찾아볼 수 있다.

충남 15개 시·군의 전통문화·농산어촌·해양레저·지역축제와 관광지를 연계하여 콘텐츠를 다양화하였으며, 충남 해수욕장의 날씨와 일출·일몰, 조석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관광객들의 안전한 해양 활동을 지원하였다.

‘충남날씨관광’ 서비스는 충남관광 누리집([tour.chungnam.go.kr/weather/](http://tour.chungnam.go.kr/weather/))에서 제공되며, PC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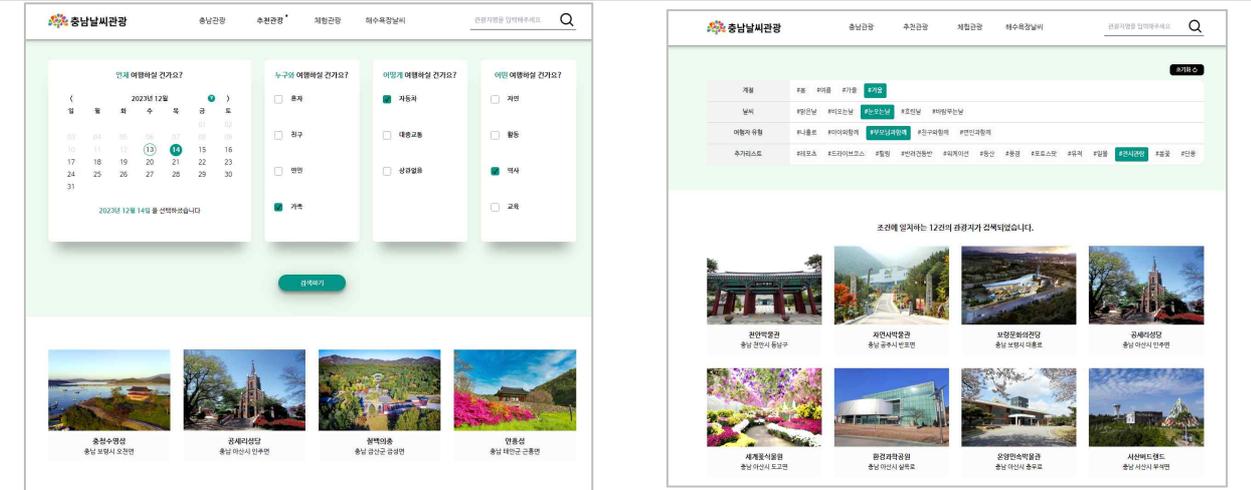
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은 “기상과 관광의 융합정보인 ‘충남날씨관광’ 이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,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.” 라고 말했다.

붙임 충남날씨관광 표출 화면

담당 부서	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	유민수 (042-363-3540)
		담당자	주무관	서유미 (042-363-3548)



메인화면



맞춤형 관광지 추천(AI/해시태그)



충남날씨관광 QR코드